

[2025 기술닥터가 간다] (주)한마당

이영지 입력 2025. 11. 3. 18:41 수정 2025. 11. 27. 13:00

K-콩물, 레토르트 공법 '상온보관 혁신'

분당 맛집 메뉴, 밀키트로 재탄생
현장애로 지원... 맛·품질 표준화
올 총 20억 추정·중동 진출 목표

경기도 '기술닥터'는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전문가를 통해 '핀셋' 치료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대표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경인일보는 기술닥터를 통해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한 우수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승양 (주)한마당 대표가 '오동리 콩국물'과 '오동리 팔죽' 등에 레토르트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술닥터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5.10.27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콩국물이랑 팔죽도 밀키트로 만들어주세요.”

(주)한마당의 '오동리 콩국물'과 '오동리 팔죽'은 성남 분당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칼국수한마당의 인기 메뉴를 밀키트로 만든 제품이다. 한승양 대표가 은퇴 후 '인생 제2막'을 꾸리기 위해 지난 2011년 가게 문을 열었고, 밀키트 제품까지 판매하게 된 것은 2019년부터였다. 맛집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회사는 처음 운영해볼 뿐더러 설비도 부족해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잘 상한다는 콩의 특성상 콩국물이나 콩죽을 냉동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맛이나 보관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큰 아쉬움이었다.

그러던 중 한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의 기술닥터를 만나 '레토르트 공법'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롯데칠성음료(주)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인 장중영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부회장에게 지난해 6월 자문을 받으면서다. 이어서 올해도 흑임자와 대추야자가 추가되는 콩죽 제품에 레토르트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장중영 부회장의 도움을 받았다.

3단계까지 나뉘는 경기도의 기술닥터사업 중 1단계인 '현장애로기술지원'을 받았다. 현장애로 기술지원은 기술닥터가 10회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1:1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장 부회장은 지난 4월 5차례 기업을 방문해 콩죽과 흑임자·대추야자 혼합제품의 샘플을 제조해 보고 레토르트 살균 테스트 등을 진행하며 제품의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했다.

콩을 삶는 시간과 조건을 변화시켜보고 제품의 맛과 물성 변화를 파악해 표준화하는 작업을 도왔고 포장용기의 표준화까지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흑임자가루와 대추분쇄물 혼합과정에서 기존 분쇄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레토르트 공법을 활용해 상온에서도 6개월 정도 보관 가능한 ㈜한마당의 콩국물·콩죽, 팥물·팥죽 제품. 2025.10.27 /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기술닥터의 도움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힘입어 한마당은 꾸준히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9년 5천만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3억5천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총 매출은 2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국가 다변화까지 꾀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대추야자 콩죽 신제품 개발로 중동까지 수출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다.

한 대표는 “직원 8명으로 운영되는 작은 기업이다보니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쌓아놓은 데이터도 없어서 (신제품 개발이) 막막했는데 기술닥터 덕분에 상온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해외에서도 콩국물인데 상온보관이 된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점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장중영 식품기술사협 부회장 “매출액 상승·해외수출 성과 보람”

장중영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기술닥터로 참여해 20여개 기업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해결해줬다.

롯데칠성음료(주)와 만구수산(주) 등에서 35년간 제품개발,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맡았던 식품공학 전문가다. 지난 2019년 은퇴 후 기술닥터를 알게 돼 바로 지원했고, 이후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 곳곳을 찾아 도움을 주고 있다.

장 부회장은 기술닥터로서 얻는 '보람'이 그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기술닥터로 참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도움을 준 기업의) 매출액도 점점 올라가고 해외 수출도 하게 되고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그가 도움을 준 (주)한마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해에도 (주)한마당의 콩국물, 콩죽 제품에 '레토르트 공법'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장 부회장은 "정년퇴직 후에도 제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도와주니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업체 섭외 및 취재를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5 기술닥터가 간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